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 / 행정사 조 기 문
(우)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층 805호(만성동, 오케이타워1)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Fax. 063-223-8742 E-mail. jokimoon@naver.com

2025년 9월 4일(목) 제 3164호

완주군, 행안부장관에 "통합 반대" 직접 건의

군의회, 윤호중 장관에 건의서 전달
주민 갈등·행정력 낭비 장기화 우려
"중앙정부 신속한 결단 필요" 촉구
"논의, 시장·도지사 공약이 촉발"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완주전주 통합반대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은 3일 이서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개원 60주년 행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건의서를 직접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유 의장은 이 자리에서 "통합 찬반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행정력 낭비와 지역사회 불신만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신속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의장은 "이번 통합 논의는 주민의 요구가 아닌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공약에서 출발했다"며 "정작 피해를 입는 것은 완주군민이며, 주민들의 생활권과 자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회가 제출한 건의서에는 ▲주민 동의 없는 통합 논의 중단 ▲주민자치 원칙 존중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 종결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서남용 위원장 역시 "통합 논란으로 주민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권리와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날 윤호중 장관의 방문에 맞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완주전주 통합 반대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민들의 뜻을 전했다.

군의회는 향후 정부가 조속히 논란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 후 새만금 첫방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도>

전북개발공사,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 선정

지표 전년比 상승 점진적 개선
지역 균형발전 조성 성과 인정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전북자치도 주관 2024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우수 등급(90.09점)을 획득,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공통지표와 특성지표를 합한 합계점수 90.09점으로 지난해 88.36점보다 1.73점보다 상승하고, 23년(86.02점), 22년(83.10점) 등 4년간 총 6점이상 꾸준히 상승, 점진적 경영개선 효과를 보여줬다.

평가는 기관의 운영 및 사업 실적, 전년 대비 개선 노력 등을 기준으로 Ⅰ유형(경제.산업 분야), Ⅱ유형(사회문화.복지 분야)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평가 등급은 가~마 5단계로 부여됐다.

경제산업지원분야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 기술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자치도콘텐츠 진흥원 등 8개 기관이다.

특히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반영해 저출생·지방소멸 등 공공성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부채관리 이행 여부 등 재무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개발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북형 반할주택 추진, 수소·도민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모델 수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완주·익산 국가산단 조성, 건설현장에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 자체 개발 AI 자동화 시스템 개발, 적자에서 흑자경영 전환 및 부채비율 개선 등 안정적 재무구조 유지를 통해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책임경영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김대근 사장은 "올해도 익산 부송데시앙 100% 분양, 혁신에코르2단지 분양전환 완료, 만성에코르1단지 분양전환 호조 등 주택사업 호실적 달성으로 경영성과 개선이 뚜렷하다"며 "신규사업 지속 발굴, 재생에너지 확대, 주거안정, 도시재생 지속 참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며, ESG 경영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본격 시동

새만금 중심 특화 전략 수립 착수
드론·자율주행차·무인선박 등 육성
종합실증센터 구축·UAM 연계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무인이동체 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울대학교 지능형 무인이동체연구센터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국내·외 산업 현황 및 시장 전망 조사 ▲전북 무인이동체 산업 분석 및 전략 분야 도출 ▲기본계획 수립 ▲국가사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북특별법을 통해 드론, 자율주행차, 무인농업기계, 건설기계, 무인선박 등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했다. 도지사가 새만금에 육·해·공 무인이동체 종합 실증단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재정 지원 기반도 아울러 확보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글로벌 시장 성장세와 주요 국가·타 시도의 정책 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전북의 입지 여건과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역량을 결합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특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을 통해 도출될 세부 전략에는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센터 구축 ▲해양·농업 분야 특화 실증단지 조성 ▲도심항공교통(UAM) 연계 사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비 확보, 지역 기업 참여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전북의 강점 산업인 농생명·해양·소재·이차전지 분야와 무인이동체 기술을 융합해 전북형 특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무인이동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신원식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와 관련, "무인이동체 산업은 교통·물류·의료 등 공공서비스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주시, 음주운전 사망자 전국 1위

한병도, 전국 음주운전사고 분석
전주시 지난 5년간 26명 사망

전주시가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에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3일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죽고 11만 3,715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였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938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이어 창원시(25명), 고양시(21명), 서산시(18명), 제주시와 포천시(각각 17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한병도 의원

도내에서는 전주에 이어 군산시가 373건의 사고에 4명 사명, 633명이 다쳤고, 다음은 익산시로 335건의 사고에 9명 사명, 51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서울=김영묵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9월 4일 목요일

김민석 총리 새만금 방문…"기업활동 저해 규제 개선"

새만금 신항 등 주요 현장 점검
MP재수립, SOC 등 현안 논의
김관영지사 예타 일괄면제 건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주요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 개발의 현주소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8월 4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국무총리를 면담하며 글로벌 메가특구 지정과 새만금 SOC 일괄 예타 면제 등 현안을 직접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면담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책 검토 의지를 보인 것이다.

김관영 지사가 가장 먼저 제시한 건의는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단순한 개발사업의 공간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광역 단위 포괄 규제특례를 담은 '글로벌 메가특구(메가샌드박스)'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이 '제로베이스 지대'로 기능해야 한다며 첨단전략산업이 규제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실증·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SOC 인프라 ▲인력양성 ▲전주기 R&D 지원 ▲세제 감면과 전력요금 인하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결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새만금 메가 특구 1호 산업으로 '헴프 산업 클러스터', 2호 산업으로 '첨단재생의료'를 제시하며, 규제제로화 여건이 마련되면 즉시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있는 만큼 조속한 메가 특구 지정을 적극 요청했다.

두 번째는 '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일괄 면제'다.

김관영 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달빛철도 등 타 지역 대형 국책사업이 특별법을 통해 일괄 예타 면제된 전례를 언급하며, 새만금도 동일한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북3축 도로, 환경생태용지 2-2단계, 내부간선도로 잔여 구간, 배수갑문 증설 등 2조 1천억 원 규모의 4개 사업을 면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배후부지 재정 전환과 새만금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를 건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이차전지 기업의 물동량을 처리하려면 배후부지와 접안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타 항만처럼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국제공항이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연내 착공을 위해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지원, ▲무인이동체 실증 테스트베드 등을 건의하며, 새만금이 국가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는 점을 김관영 지사는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 공항,신항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새만금,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새만금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주요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 개발의 현주소를 점검했다. <사진=전북도>

민주당 전북도당,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 확정

청년부터 노조·변호사까지
12명 후보 명단 발표
경선 공론화 과정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일 성명을 내고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단(단장 장경태 국회의원)이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본격화하는 경선 공론화 과정 대상 후보를 확정하고 1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며 "후보들 면면을 보면 24세 청년, 아파트 동별 대표자, 은행 노조지부 위원장, 변호사, 노무현재단 지역 시민학교장 등 다양한 연령, 직업, 성별 등 해당 분야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평당원들로 이번 최고위원 선거를 더욱 뜻깊게 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과정이 당원들은 물론 원내외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길 바라며 공개 배심원단 심사, 온라인 토론회, 합동 연설회 등 앞으로 남은 전 과정에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명실상부한 당원 주권 정당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일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적극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관광브랜드 핵심 키워드 발굴 머리 맞대

관광브랜드 키워드 공모전 개최
도민·관광객 참여 키워드 제안
슬로건·브랜드 디자인에 활용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의 관광가치를 담아낼 '관광브랜드 키워드 공모전'을 개최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도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전북의 매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발굴하고, 이를 향후 관광브랜드 슬로건과 디자인 개발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3일부터 13일까지 10일 간 진행되며,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전북의 관광은 ~다'라는 주제에 맞춰 전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제안하면 된다. 응모는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모전 팝업창이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5,000원 상당의 커피쿠폰이 증정된다. 선정된 키워드는 전북 관광브랜드 슬로건과 브랜드 디자인 개발, 나아가 대외 홍보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관광브랜드 목표와 전략 설정 ▲핵심 관광자원 분석을 통한 정체성 확립 ▲브랜드 차별화 전략 수립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슬로건 및 BI 디자인 개발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손미정 도 관광산업과장은 "이번 키워드 공모전은 도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전북 관광의 새로운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첫걸음이다"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브랜드를 구축해 전북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익산 방문 학교 안전 살펴

궁동초교 통학로 위해요소 점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익산시 궁동초등학교를 찾아 개학기 통학로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운영되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지자체·교육청·경찰·시민단체 등이 함께 교통안전,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에서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내 42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집중점검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윤 장관은 "어린이 안전은 사회적 책무"라며,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세심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도시재생 공모 4년 연속 선정…국비 90억 확보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공모 선정
완주 이서·고창 교촌지구 포함
쇠퇴주거지역 정비·주민 역량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서 완주 이서지구와 고창 교촌지구가 선정, 정부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국비 90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은 2022년 부안, 2023년 정읍·남원, 2024년 김제에 이어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쇠퇴한 주거지역에 공공시설 조성과 집수리 지원 등을 통해 열악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완주군 이서지구는 '어른과 아이가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오목마을'을 주제로 총사업비 102억 원(국비 50억 원)을 투입한다. 노후주거지 집수리 지원, 통학로 보행 안전 개선, 어르신·아동 통합형 돌봄공간 조성 등이 추진된다.

또 고창군 교촌지구는 '오래된 미래 교촌마을,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총사업비 97억 원(국비 40억 원)을 들여 집수리 지원, 골목길 및 경사로 정비, 소공원·주민쉼터 조성 등을 진행한다. 특히 주민 맞춤형 운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새봄누리센터'도 건립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연초부터 시군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중간지원 조직을 활용해 현장조사, 주민 설문조사, 사업계획 수립을 진행했다. 또한 국토부 평가 단계까지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을 받아 철저히 대비한 결과, 신청한 2곳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용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장은 "여전히 도내 구도심의 쇠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일선 시군과 협력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재생 속도를 높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주요 재정사업 현장 점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등 방문
해양·수상 안전 체험 현황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재정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위원들은 먼저 국내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 거점인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찾아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테마체험관과 풍력시험동 등을 시찰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해양수련원을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한 해양 체험활동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해양·수상 안전 체험관과 실전 체험장을 둘러봤다.

예결특위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앞으로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명지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심사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 심사에 충실히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에 박혜숙 의원 선출

제422회 임시회 보궐선거
지역 문화 경제 발전
투명 운영 다짐

제12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문화경제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박혜숙(송천1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전주시의회는 3일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문화경제위원장 보궐선거에서 박혜숙 의원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신임 박 위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다.

박 위원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문화경제위원회가 지역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관우 의장은 "문화경제위원회가 지역 문화와 경제 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단지 근로자 대상 천원 아침밥 시범 실시

3일~17일까지 참여 신청
올해 10월부터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도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2025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 해왔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현장 호응도가 높아, 이번에는 산업단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든든하게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산단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추진한다.

산단 근로자는 식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으로 인근 도시와 멀리 떨어진 산단은 식당 접근성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 등으로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농식품부는 금년 시범사업을 계기로 산단 내 아침밥 문화를 확산하고, 쌀 소비도 함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산업단지* 중 최대 17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산단 내 입주기업 협의체 또는 기업(이하 '기업 등')은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신청기간(9.3~9.17) 내 전자우편(audgh1730@epis.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선정 시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별 기업보다는 공동식당을 운영하는 입주기업 협의체를 우선 지원한다.

아침밥 확산의 취지에 맞춰 기존에 조식을 제공하지 않던 기업 등은 평가에서 우대한다. 산업단지별 여건에 맞게 구내식당 외에도 주문배달, 케이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 등은 10월부터 12월까지 아침밥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조식단가 중 정부가 2천원을 지원하고, 근로자 실부담이 1천원이 되도록 나머지 금액은 지방비 및 기업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신청서 서식 및 신청방법, 지원기준, 사업 기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정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지적장애인 취약가구 활동지원 모니터링 강화

불시 현장 점검 실시

전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적장애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비스 투명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지적·자폐 장애인 1인 가구 54가구 △지적·자폐·언어 장애인이 포함된 2인 이상 가구 28가구 등으로, 시 장애인복지과 직원 16명이 2인 1조로 총 8개 팀을 편성해 불시에 현장을 찾아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의 적정성 △활동지원사의 근무실태 △이용자의 생활 안전 및 위기 징후 확인 등이다.

특히 시는 제공기관에 대상자 명단을 전달해 사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불시 현장 모니터링을 병행함으로써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취합해 보고하는 한편, 위기 가구가 발견될 경우 긴급지원과 사례관리팀 등 유관부서와 즉시 연계할 예정이다. 나아가 주요 결과를 제공기관과 공유해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박은주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취약가구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시민 독서공동체 독서동아리 성장 돕는다

우수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참여 동아리 공개 모집

책의 도시 전주시가 시민 독서공동체인 독서동아리들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역 독서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14일까지 '2025 전주시 우수독서동아리 지원 운영 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주시에 등록된 독서동아리 중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동아리는 그동안의 독서 활동과 운영 성과를 사례로 발표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우수독서동아리를 발굴·지원하고, 다양한 활동 경험을 시민과 나누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등록된 독서동아리 중 자발적으로 구성돼 5인 이상이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모임으로, 서류심사에 합격한 뒤 오는 11월 29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열리는 사례 발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례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 동아리에게는 △대상(1팀, 50만원) △우수상(2팀, 각 30만원) △장려상(7팀, 각 10만원) 등 도서문화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지며, 응원상과 발표상을 통해 추가 시상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접수는 전주시 누리집(lib.jeonju.go.kr)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독서동아리 간 교류와 성장을 도모하고, 독서를 통한 시민 공동체 확산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미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다양한 독서동아리가 활동을 이어가고,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립교향악단, 제274회 정기연주회 '후기낭만적 가을' 개최

12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협연자 백주영 바이올리니스트

전주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겸 지휘자 성기선)은 오는 12일 오후 7시 30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제274회 정기연주회-후기낭만적 가을'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후기 낭만주의의 정서를 바탕으로 20세기 초·중반을 대표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두 작곡가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와 에리히 볼프강 코른골트의 주요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특히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이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협연자로 무대에 올라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의 첫 곡인 코른골트의 '바다 매' 서곡은 마이클 커티즈 감독의 해양 어드벤처 영화음악으로, 영화음악을 고전음악 수준으로 끌어올린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어지는 무대는 코른골트의 대표작인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다. 이 작품은 영화음악적 선율미와 낭만주의 협주곡의 정통성을 동시에 아우르는 걸작으로, 서정성과 화려함을 함께 담고 있다.

협연자인 백주영 바이올리니스트는 깊이 있는 해석과 탁월한 기교로 곡의 매력을 한층 빛낼 예정이다.

세 번째 무대는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카프리치오' 중 '달빛음악'(작품 85)으로, 섬세하고 서정적인 선율을 통해 낭만적 정취를 한껏 자아낸다.

공연의 마지막은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죽음과 정화'(작품 24)가 장식한다. 슈트라우스가 한 예술가의 삶과 죽음을 구상해 담아낸 이 작품은 인간의 삶과 죽음, 영적 초월을 장대한 스케일과 극적인 전개로 그려내며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한편 공연 입장권은 R석 1만 원, S석 7000원, A석(2층) 5000원으로, 나루컬쳐 누리집(www.naruculture.com) 또는 전화(1522-6278)로 예매할 수 있다. 학생 및 예술인패스카드·다둥이카드 소지자에게는 3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집중 단속'

9월부터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합동
성매매·대부 등 전단지 전면 차단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9월부터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기초질서 확립과 생활 불편 해소를 목표로 '광고물무단부착·쓰레기투기·음주소란·무단취식·암표매매' 등 5대 질서 저해 행위 등이다.

특히 성매매 알선 전단지, 대부광고, 불법 의약품 광고물은 청소년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순히 업소 운영자뿐 아니라, 전단지를 제작·인쇄하는 인쇄소, 이를 배포하는 업주·종업원, 아르바이트생까지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7~8월 동안은 시민 계도와 홍보 중심 활동이 이어졌으나, 9월부터는 주 2~3회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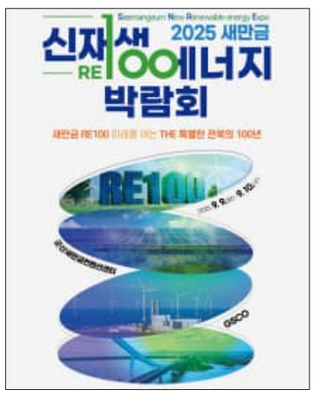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불법 업소로 유인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며 "업소 관계자와 인쇄소뿐만 아니라 전단지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전북경찰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이어가며, 필요시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활용해 제작·유통 경로까지 추적하여 근본적인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개최

새만금에서 시작하는 RE100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오는 9일~10일 양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슬로건은 "새만금 RE100 미래를 여는 THE 특별한 전북의 100년"으로, 주관은 (재)전북테크노파크가 맡는다.

박람회는 전북의 에너지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새만금 RE100산단 유치, 산업 및 기술동향 교류 촉진을 목표로 기획됐다.

개막식은 9일 오전 컨벤션2홀에서 열리며, 기조강연은 배지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에너지고속도로와 RE100산단'을 주제로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타일러 라쉬의 특별강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 이어져 대중과 산업계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핵심 프로그램인 RE100포럼은 컨벤션2홀에서 3개 섹션으로 진행된다.

섹션1은 'AI시대의 RE100 산단 및 에너지 산업의 미래'로, 산업기반강화·전력망대안(NWAs)·글로벌 동향·AI 탄소자산화·e-Fuel 등 최신 이슈를 다룬다(14:30~17:00).

10일 오전 섹션2는 '분산형 시스템 연계 RE100 산단과 에너지 자립'(10:00~12:00), 오후 섹션3는 'RE100 산단 조성 및 글로벌 혁신 모델' (13:30~15:00)로 진행된다.

전시·홍보관은 1층 컨벤션홀1에서 양일간 운영되며, 전북특별자치도 홍보관과 18개 기업전시, 논문 포스터 전시로 구성된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농어촌공사·현대건설·한국해상풍력·티유브이슈드코리아·코스테크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인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가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평가를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사진=전주덕진소방서>

전주덕진소방서, 소방전술훈련 자체평가 실시

시민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목표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가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평가를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2025년 하반기 소방전술훈련 자체평가'는 지난달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18일간 진행되며, 소방령 이하 외근 소방공무원 190명이 대상이다. 평가는 실제 현장 상황을 재현한 3개 분야로 구성된다.

화재 분야에서는 공기호흡기 장착 및 비상호흡법, 구조 분야에서는 화학보호복(Level A) 착용법, 구급 분야에서는 현장 심폐소생술(CPR) 팀워크 훈련이 실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실기평가와 함께 이론평가가 새롭게 도입됐다.

화재·구조·구급은 물론 장비·안전관리·소방시설까지 총 6개 분야 문제은행을 활용해 소방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상황 판단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주덕진소방서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원의 강점과 부족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해 개인 맞춤형·팀별 보강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을 더욱 견고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현 서장은 "공기호흡기를 1초라도 빨리 착용하고, 화학보호복을 정확히 착용하며, 심폐소생술을 팀워크로 완벽 수행하는 것이 곧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며 "지속적인 훈련과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소방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경찰서, 학교폭력 근절 … 예방교육 진행

전주덕진경찰서 학교전담팀은 신학기를 맞이해 3일 전일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재학생 116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인병) 아중지구대(대장 엄두석)는 지난 3일 인후초등학교 앞에서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최근 발생한 픽시자전거(브레이크)사망사고 관련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픽시자전거 위험성 전파 및 자전거 안전수칙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김인병 전주덕진서장은 "학교폭력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학교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9월 4일 목요일

美 상호관세 시행 '수출 중소기업' 지원 나서

4대 K-소비재 수출 전략 마련 등 시장 다변화 지원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되면서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약 63.1%의 기업이 對미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물류지원, 정책자금 확대, 관세정보 제공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기부와 관세청은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 및 관세 심층상담을 확대하고, 기관별 발표하는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해 15개 수출지원센터, 중기중앙회, 각종 협·단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함량가치산출 등)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대응 협력프로그램을 운영시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통상 리스크 대응과 피해 지원을 위해 4.6조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히 지원하고,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부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 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 수출국 다변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컨설팅 확대 등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부 지원금을 최대 50% 확대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2배(3천만원→6천만원) 상향하고,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2026년에 신설해 국제운송료·해외 내륙 운송료·국제특송 소요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해 물류애로를 완화한다.

한성숙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해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하양진농협전주시지부장, 범농협사회공헌상수상

다양한 농협 사회공헌활동 공로를 인정받으며 새로운 농협 구현에 앞장선 농협맨이 시상대에 올랐다.

3일 하양진 농협전주시지부장은 '2025년 3분기 사회공헌활동 우수사무소 시상식'을 통해 농협중앙회 '범농협 사회공헌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범농협 사회공헌상'은 농협중앙회가 선정해 시상하는 영예로운 상이다.

심사에서는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전국농축협 등 계열사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따른 지속성-참여도-활동내용 우수성-지역사회 기여도-사업활성화 제고도 등 바탕으로 진행된다.

수상에 오른 하양진 전주시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등을 펼치며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가 추진한 전주시-김제시 관내 농축협 임직원들의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기부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또 전주시 범농협 임직원이 참여한 릴레이 헌혈 캠페인은 지역 내 혈액 수급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생명 나눔 헌혈 문화 확산 기여로 파악됐다.

하 지부장은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촉진에 앞장서왔다.

하양진 지부장은 "이번 수상은 모든 농협맨들의 지역사회 위한 진정성 있는 활동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신협 국가유산 어부바적금' 누적 가입액 1천억원 돌파

국민 참여형 국가유산 보호 금융상품 자리매김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지난해 선보인 '신협 국가유산 어부바적금' 누적 가입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지난 2일 국가유산청과 신규 '국가유산 보호 후원약정'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후원약정식은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렸으며,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박종군 장도장 보유자를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신협의 국가유산 사회공헌성과 공유 △후원사업 참여자 소감 △신규 후원약정 체결 △10억원 규모 국가유산 보호 기부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신협은 이번 후원약정을 계기로 △'국가유산 독도사랑적금' 출시 및 보호기금 조성 △천연기념물 독도와 자연유산 보존 지원 △조선 4대 궁궐 및 고택 전통한지 후원 등 다양한 국가유산 보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 8월 출시된 '신협 국가유산 어부바적금'은 국내 유일의 헤리티지 금융상품으로, 만기 해지 시 가입금액의 1%를 신협사회공헌재단이 국가유산 보호기금으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1만 6,260명, 누적 가입금액 1,072억 원을 기록하며 국민 참여형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신협은 높은 호응에 힘입어 지난 8월 14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가유산 독도사랑적금'을 추가로 출시했다.

대한민국 영토주권의 상징이자 국가유산인 독도의 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이를 통해 조성된 후원금은 독도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유산 보호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신협 국가유산 어부바적금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국가유산 보존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현재까지 10억 원 규모의 후원 기금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출시한 독도사랑적금을 통해 그 뜻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는 '신협 국가유산 어부바적금' 누적 가입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지난 2일 국가유산청과 신규 '국가유산 보호 후원약정'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신협은 2020년부터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조선 4대 궁궐 및 종묘 창호 보수 지원 △창덕궁 무인발권기 설치 △국가무형유산 취약종목 전승자 48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국가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기여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김정태 전주상의회장, 하계올림픽 홍보 '집중'

세계상공회의소 총회 참석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전 세계 상공인들이 모여 상공회의소의 운영·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상공회의소 총회(WCC)에서 2036년 전주하계올림픽 홍보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고 있는 WCC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의 사업이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행사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고, 김회장은 '2036 전주하계올림픽'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총회장에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가 우리나라 주요 사업으로 반영돼 안내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림픽과 기업간 관계'란 주제로 개최된 세션에서는 세계 상공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전주와 20236 하계올림픽을 홍보하는데 집중해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정태 회장은 '앞으로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은 물론 올가을 개최되는 드론축구월드컵 등 전북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 행사를 홍보해 나갈 계획'임과 동시에 '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어려운만큼 글로벌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은 활로를 모색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WCC 총회는 110개국에서 글로벌 경제계 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의와 기업, 정부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워킹그룹세션과 간담회, 산업시찰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혜민 기자

저지(Jersey)종 사육기준·고상식 시설 설치기준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젖소품종인 저지종 특성에 맞는 사육밀도 기준 신설

현재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홀스타인종 몸통부피의 70% 수준)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육밀도를 산정함에 따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사육밀도 산정 기준 합리화

현행 규정은 어미소와 함께 사육하는 3개월령 이하 소는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8개월령 소에 집중돼 협소한 시설(50㎡ 이하)을 보유한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경우 3개월령 초과 시 사육밀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의 문제가 있었다.

△방역 친화적인 닭·오리 사육시설인 '고상식 사육시설'의 설치 기준 마련

고상식 시설은 가축의 분뇨와 생활공간이 분리되고 깔짚을 사용하지 않아 사람·장비의 출입을 최소화해 방역 효과가 높은 시설이나, 현행 규정에는 고상식 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보급·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오리 농가의 이동통로, 깔집보관시설 설치 기준 합리화

오리 사육 중 분동과 깔집 교체 과정에서 AI 바이러스 노출 방지를 위해 '22년 시행령을 개정해 종오리·오리사육업 허가 기준에 이동통로, 깔집보관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했다.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을 90kg에서 105kg으로 개선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경우 35kg부터 90kg 도달 시까지 능력검정* 실시했으나, 능력검정 종료 시점이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축개량기관의 인력 자격요건 완화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했으나,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준'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축산업의 축종 다변화와 소비패턴 변화 등의 현실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조치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대한민국 전기안전 컨퍼런스' 8일 개막

기관·전문가 소통의 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오는 8~10일 서울 세종대 컨벤션센터 광개토관 B2(A·B·C홀)에서 '2025 대한민국 전기안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전기안전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전기안전 대상 △사고조사 세미나 △국제 전기안전기술 세미나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대회 △PECMD(전력설비 상태관리·진단) 세미나 △KESC(전기설비 검사 기준) 기술세미나 등 6개 행사를 3일간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 컨퍼런스'를 통해 참석자들이 폭넓은 인적·정보 교류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전기안전 유공자의 공적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기안전 컨퍼런스' 첫날인 8일에는 △제28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이 열린다. 유공자 포상을 통해 전기안전 인식도를 확산하자는 의미로 진행되는 행사다.

9일 열리는 △사고조사 세미나는 최신 조사 분석 기법 공유를 위한 자리다. △국제전기안전세미나는 최신 정책과 미래기술 공유를 통해 글로벌 전기안전 생태계 선도를 위한 행사이며,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대회는 유공자 포상과 함께 전력산업계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이다.

'전기안전 컨퍼런스'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에는 △KESC 기술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다.

전기설비 검사 절차·방법·기준과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PECMD 세미나에서는 우수 진단 기술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전기안전 분야에 헌신한 이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관계기관·전문가의 폭넓은 소통을 위해 6개 행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며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 전기안전 분야를 상징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광개토관 B2 로비에서 8, 9일 취준생을 위한 채용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방문자 대상 전기안전사진전, 사고조사포스터전 등 볼거리를 제공한다.

/정혜민 기자

LX 임실순창지사, 사랑의 '행복나눔측량' 실시

화재·재난 등 거주 어려움 이웃 주거 재건 기반 마련

한국국토정보공사(LX) 임실순창지사는 2일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나눔측량'을 실시했다.

이번 측량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의뢰를 통해 진행됐다.

'119하우스 행복나눔측량' 사업 일환으로 화재나 재난 등으로 인해 거주가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 재건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복나눔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펼쳐온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지적측량을 제공해 주택 신축이나 보수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대상자는 5인 가족에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가정이며, 주택화재로 주거 재건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LX임실순창지사는 현장 방문을 통해 지적 경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건축 인허가 및 토지 활용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LX임실순창지사 지사장은 "119하우스 사업은 위기에 처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뜻깊은 연계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LX는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적측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막 올려

6~21일까지 16개 종목 404개팀·5,070명 참가 역대 최대 규모 개최

도내 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이번 주 막을 올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6일부터 21일까지 전주근영자고등학교를 비롯해 도내 22개 경기장에서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돕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개최하는 전북 최대의 학교체육 행사이다.

이번 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초·중·고 404개 팀, 5,070명의 학교스포츠클럽 선수가 참가해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16개 종목에서 열띤 경합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 방식을 선보인다.

축구와 농구 종목에 '시·군 분리 토너먼트 방식'을 시범 적용해 군 지역 학교 학생들에게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경쟁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스포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스포츠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식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시·군 분리 방식 적용 종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일부종목을 시군 분리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범 운영한 이번 대회는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스포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완산학원, 교사 징계 철회 소송 모두 패배

14건 패소 법원 판단 인정

완산학원 이사회가 최근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교사의 징계를 철회했다는 논란과 관련 "앞서 14번의 해임된 교사들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해 법정 다툼의 실익이 없어 철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사회는 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4번의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양정 감경' 판단을 내렸다"며 "우리 이사회는 그 판단을 이제 인정하고 이렇게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완산학원은 공금 횡령과 뇌물 수수, 승진 부정 청탁 등의 사학비리로 설립자가 구속되고 40명에 가까운 교직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교감 승진 대가로 2천만 원을 상납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던 교사가 소송을 통해 처분 무효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사회는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해 논란이 됐다.

완산학원 정우식 관선 이사장은 "관선 이사회로 바뀌기 전 비리 재단은 교감 자격 연수를 추천하는 조건으로 2천만 원을 상납시켰고, 신규 임용에도 동일한 금액의 기부금을 갈취했다"며 "관행적으로 비리를 저질러온 재단 이사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성민 기자

천호성 교수 "국힘, 터무니없는 의혹으로 흡집 내기 중단하라"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 적극 지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천호성 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이 "국민의 힘은 터무니없는 의혹으로 흡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3.44%p 차이로 석패하며 이번 교육감 선거에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천호성 소장)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열린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국힘 소속 한 의원이 전북미래교육연구소와 천호성 소장을 언급하며 최 후보자의 외부 강의에 대해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천 교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최 후보자가 세종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4월 26일 전주교대에서 열린 '교육119 자담회'의 강연은 여러 교육시민단체들이 공동주최한 토론회"라며 "탄핵 이후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교육관계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연구소는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실을 정확히 밝힌다"며 "전북미래교육연구소는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교사 시절 성적이 떨어져 울던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의 논란으로 '하자 종합세트'라며 자진사퇴를 요구당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 농어촌유학생, 3년 새 대폭 상승

2022년 27명→올해 257명 특색 프로그램 등 성과

전북 농어촌유학생이 이번 2학기에 65명이 추가되면서 3년 새 비약적 상승을 이뤄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6월과 7월 2차에 걸쳐 2학기 전북 농어촌유학생을 모집해 최종 65명을 선발, 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5명을 비롯해 경기 29명, 울산 5명, 충남 4명, 대구·부산 3명 등 전국 각지에서 전북으로 농어촌유학을 오고 있다.

전북 농어촌유학은 2022년 27명으로 시작해 올해 2학기 현재 257명으로 3년 만에 10배 가까운 성장세를 이뤘다.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으로는 △진안 조림초 아토피 학생 맞춤형 건강지원과 숲체험 △락밴드·골프·단편영화 제작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군산 술산초 역사탐방과 승마체험 △익산 웅포초 골프와 생태체험 △주말농어촌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6월과 7월 2차에 걸쳐 2학기 전북 농어촌유학생을 모집해 최종 65명을 선발, 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자체는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거주시설을 발굴·지원해 농어촌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는 농어촌유학생 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체제비 등 행·재정적 지원과 거주시설 마련 등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농어촌유학은 단순한 전학이 아니라 삶의 전환과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유학이 학생들에게는 자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농어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자리매길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초등학교 1~3학년 대상 관계회복 숙려제 시범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월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관계 회복 숙려제'가 시행되면 경미한 사안 발생시 당사자 간 동의를 바탕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종료시까지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하며, 관계회복 결과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등의 사안 절차가 진행된다.

초 1~2학년 대상으로 2027년에 도입한다는 교육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북교육청은 자체 사업과 연계해 초 3학년까지 확대하고, 올해 9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도에는 전면도입 할 계획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통한 관계회복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전북형 관계회복 숙려제'로 특화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김희대 교수팀, 한-영 과학기술협력창구 사업 선정

김희대 교수

전북대학교 김희대 교수 연구팀(자연과학대학 반도체과학기술학과)이 영국 요크대학교와 손잡고 양자공학과 인공지능(AI) 융합기술을 주제로 국제 공동연구 및 학술 교류를 추진한다.

김 교수팀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도 한-영국 과학기술협력창구사업'에 선정돼 관련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양자광자공학과 인공지능 융합기술 공동연구 및 교류 기반 조성으로, △국제 학술워크숍 정례화 △양국 연구자 및 대학원생 교류 활성화 등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김 교수는 "이번 과제를 통해 전북대가 세계 양자연구 생태계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장애인 선수단, 집중강화훈련 돌입

10월 31일부터 6일 간 부산에서 열리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선수단은 지난 8월 대표선수단 구성을 마치고 최상의 경기력 발휘를 위한 종목별 집중강화훈련에 돌입했다.

전북선수단은 휠체어테니스, 휠체어펜싱, 좌식배구, 보치아, 론볼, 육상, 역도, 사이클, 양궁, 태권도, 사격 등 26개 종목에 505명으로 구성, 각 종목별 훈련장에서 지속되는 극한의 폭염 속에서도 필승의 다짐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이번 훈련을 이끄는 도장애인체육 종목별 경기단체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자체강화훈련 및 전지훈련, 현지적응훈련 계획을 수립, 종목별 맞춤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익산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순차 예방접종

익산시는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임신부, 고령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별로 접종 시기와 장소가 순차적으로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먼저 생후 6개월부터 13세까지 어린이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는 오는 22일부터, 1회 접종 대상 어린이 및 임신부는 29일부터 지정(위탁) 의료기관에서 각각 접종이 가능하다.

노인 대상 독감 접종은 연령별로 순차 시행된다. 75세 이상은 10월 15일,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접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익산시민 중 14세 이상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취약계층은 10월 24일부터 익산 내 보건기관 40개소에서 접종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10월 15일부터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독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접종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문화로 대동' 5~6일 개최 특별 공연 등 즐길거리 풍성

정읍시가 오는 5일과 6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정읍 천변 어린이 축구장에서 '2025 정읍 문화로 대동' 행사를 개최한다.

첫날인 5일에는 정읍 홍보대사이자 '내일은 국민가수' 우승자인 가수 박창근이 특별 무료공연을 펼친다. 2시간 동안 시민들과 소통하며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며, 지역 가수의 무대도 이어져 다채로움을 더한다.

둘째 날인 6일에는 정읍시립국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청년 예술인 6팀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초대가수 요요미가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이어가며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문화로 대동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축제의 장"이라며 "특히 정읍 홍보대사 박창근의 특별 무료공연이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정읍의 문화적 위상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온 가족 요리 체험 프로그램 '요가족' 진행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온 가족 요리 체험 프로그램 '요가족'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 식생활 개선 교육의 하나로, 어린이들이 채소를 직접 보고, 만지고, 요리하면서 △편식 예방 △건강한 식습관 형성 △가족 간의 유대감 강화 효과를 얻도록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센터에 등록된 관내 어린이 급식소 이용 가정 중 지난 8월 19일~25일까지 접수 모집된 100팀이다. 센터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키트는 4일 집으로 배송해 가족들이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올해는 '감자'를 주제로 전분 가루를 활용한 촉감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참여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더해줄 예정이다.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 박경진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인 가정에서 요리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감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소에 대한 관심과 자연스런 섭취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출산 친화 도시 도약

전 생애 맞춤형 지원 등 출산·양육 지원 정책 효과…출산율 상승세

익산시가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촘촘한 맞춤형 지원으로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며 출산율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건강관리비·산후회복·육아용품 지원 등 '임신-출산-양육 패키지'를 통해 도내 최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익산시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도(0.70명) 대비 8.5%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4.1%)과 전북 평균(3.8%)을 상회하는 수치로, 익산형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시는 출산율 반등을 지방소멸 극복의 핵심 지표로 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시민 만족도를 끌어올려 출산 친화 도시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도내 최초로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익산시 자체 사업으로, 임신 1회당 4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785명 규모로 진행된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1년 이내 산모가 지정 요양 기관에서 치료받을 경우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 3,897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다.

또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교실도 연 20회 운영되며, 산전·산후 교육, 모유 수유·태교법, 신생아 이해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유아를 위한 육아 필수재 지원도 익산시만의 특화된 지원 정책이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현재 460명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도내에서 익산·전주·임실 3개 시군만 운영 중이며, 이 중에서도 익산시의 예산 규모는 4억 9,600만 원으로 도내 최대다.

시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걸쳐 실질적 체감이 가능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은 "청년 세대가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을 행복한 선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동진강 새로운 랜드마크로

생태·레저·문화 융합 프로젝트 중간보고회 개최

정읍시는 3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주요 구상안을 공유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동진강과 정읍천을 생태·레저·문화가 어우러진 친수 공간으로 조성해 정읍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회에서는 동진강과 정읍천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 구상이 제안됐다. △동진강·정읍천 합류부를 생태정원과 공원으로 조성해 도심 속 쉼터로 탈바꿈 △인도교 설치를 통한 하천 간 연결성 강화 △동진강 제방을 따라 자전거길과 자전거 스테이션, 쉼터를 마련해 친환경 레저공간 확충 △낙양보 하중도에 복합레저 스포츠공원 조성 △정읍천 핫플레이스와 인공습지, 파크골프장 조성 등이다. 또한 억세축제를 활용한 사계절 콘텐츠 개발도 포함돼, 계절마다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용역을 보완·심화해 최종보고회를 거친 뒤 단계별 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는 단순한 환경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생태, 문화, 관광, 스포츠가 융합된 정읍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친수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K-주얼리, 국제 전시회서 빛난다

서울·홍콩 전시회 참가 세계 무대 수출 판로 개척

익산 주얼리 기업들이 국제 전시회를 통해 세계 무대로 향한다.

익산시는 3일 '서울 국제 주얼리&액세서리 쇼'와 '홍콩 주얼리&젬 월드 전시회' 참가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헌율 익산시장은 참가 기업의 행사 진행 내용을 청취하며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수출 판로 개척 등 주얼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나눴다.

'서울 국제 주얼리&액세서리 쇼'는 오는 12~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지역 6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인다.

'홍콩 주얼리&젬 월드 전시회'는 오는 17~21일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며 지역 19개사가 해외 바이어 발굴과 상담을 통해 판로 개척에 나선다.

특히 익산귀금속협동조합을 통해 12개사가 단체 부스로 참여해 지역 업체들의 경쟁력을 더했다.

익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국제 전시회 참가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스 임차와 장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통역비와 마케팅 비용도 추가로 지원한다.

기업들은 부스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국제 전시회 참가를 위해 준비해 온 기업들의 열정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얼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K-주얼리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 영농폐자재 집중 수거

공동 수거 20년 맞아 15~17일까지 실시

군산시와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배지영)가 농촌환경 보존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영농폐자재를 집중 공동 수거한다.

영농폐자재는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 빈 병, 비료 포대, 시설하우스나 토양 멀칭에 사용된 각종 비닐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워 종종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매립돼 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에 군산시와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2006년부터 '영농폐자재 공동 수거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올해로 20년째 중요한 농촌환경정화 활동으로 자리잡았다.

또,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농촌 여성 지도자로서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생활개선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며 지속적인 농촌발전과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에 앞장서는 한편, 영농폐자재 공동 수거 활동을 통해 환경지킴이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152톤의 영농 폐비닐 등을 수거해 얻은 수거보상금은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됐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와 읍면동 생활개선회가 함께한 '이웃을 위한 나눔'은 총 12회에 걸쳐 1,3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으로 전달됐다.

군산시와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이번에 수거되는 폐기물도 전량을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에 인계해 재활용·처리 절차를 거치고 이를 통해 환경 오염 감소 및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선주 농촌지원과장은 "영농폐자재는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소각이나 매립 시 토양과 하천 오염을 유발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 된다"라며, "군산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상·하반기 집중 수거 활동을 강화하고, 농업인과 공동 협력해 깨끗하고 건강한 농촌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15~28일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한 달 앞당겨 추진 소 럼피스킨 보강접종도

군산시가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하반기 일제접종과 소 럼피스킨 백신 보강접종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 접종은 지난 3월 전남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실시한 상반기 일제접종 후 면역 유지 기간(6개월)을 고려해 당초 시기보다 한 달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매년 4월 및 10월에 실시하던 시기를 앞으로는 한 달 당겨 3월, 9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개월 간격의 접종 주기를 맞출 뿐만 아니라 농번기도 피할 수 있어 기간 내 접종을 통한 전국적인 집단 면역 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염소 농가에서는 '구제역·AI 방역 개선 대책'에 따라 소유한 사육개체 전체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이번 구제역 일제접종 규모는 소·염소 구제역 1만 6천여 두이다. 소 럼피스킨백신의 경우 그동안 임신, 연령 등으로 매년 1회 접종을 하지 못한 미접종 개체 1천여 두를 대상으로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시 동물정책과장은 "군산시를 청정구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꼼꼼한 백신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등 농가 단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자원봉사대학, 지역사회 변화 이끌어

전문 자원봉사자 배출

올해로 2년째를 맞은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 이하 '센터')의 '군산자원봉사대학'이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면서 주목받고 있다.

군산자원봉사대학은 자원봉사의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을 배출해왔다.

특히 심화 과정을 수료한 봉사자들은 단순한 배움을 넘어서, 별도로 추진되는'지역단체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이 최우수사례와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들은 경로당 어르신 대상 복지 활동, 취약 세대 생활편의 지원 등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송천규 신임 센터장은 "일반 사람들 인식 속에 자원봉사는 어려운 것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자원봉사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운 봉사자들의 모습이 자원봉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춘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활동이 군산을 더 행복한 도시로 이끌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역사·수학 접목 가족 체험 행사 열려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함께 수학을 배워보는 특별한 주말 가족 행사가 익산에서 열린다.

익산시는 1,500년 전 백제왕도 속 수학을 찾아 떠나는 '하이! 매쓰 투어(Historic Iksan Math Tour)'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하이! 매쓰 투어'는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가 주최하는 이색 가족여행 프로그램이다. 익산의 대표 문화유적지인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를 무대로 역사 속에 숨어 있는 수학 원리를 체험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수수깡과 그림자로 석탑의 실제 높이 측정하기 △석탑과 일상 속 황금비율 찾기 △그릇의 형태 속 수학 원리 탐구하기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활동이 마련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7일과 28일 각각 1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모집 인원은 선착순 40명씩 총 80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가을 나들이를 겸한 특별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라며 "역사와 수학을 융합한 익산만의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해 가족 단위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개강

농촌 정착 실용 중심 구성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는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지난 1일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정읍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 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총 10회, 4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강의실과 실습교육장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농업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실제 영농기술까지 폭넓게 제공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귀농·귀촌 정책과 성공사례, 작목별 재배기술, 농업 경영과 세무·법률, 농기계 실습 등 농촌 정착에 꼭 필요한 실용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운영해왔으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7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 과정은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농업 활동에 자신감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용관 소장은 "귀농·귀촌 초기의 막막함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새만금 사업 건의

김민석 국무총리 면담 RE100 국가산단 조성 정부차원 지원 요청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서남권 해상풍력 연계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부안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부안군민 약 4만 8000명 중 1만 60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새만금 농생명 용지 7공구 산업용지 지정 촉구 범군민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서명부는 부안군민의 간절한 희망과 결집된 의지를 담은 목소리로 이제는 정부가 부안군민의 간절한 바람에 진심으로 응답해 줄 차례"라고 호소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공약인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적기에 구현할 수 있고 모두가 잘 사는 지역 균형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농생명 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임을 강조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농생명 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은 새만금 내 부족한 산업단지를 확충하고 부안이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면담은 새 정부 출범 후 그동안 산업 인프라에서 소외됐던 부안 발전을 위한 부안군민의 의지를 국무총리에게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5일 개막

자원순환존 등 5개 분야 80개 프로그램 구성

김제시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제3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제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제3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보미 축제'는 5개 분야에 걸쳐 총 80개의 다채로운 자원순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된다.

△자원순환존(주제전시)에서는 김제시 사진을 활용한 이상기후 사진전, 주제관에서는 산업화 전후 북극의 모습을 재현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시가 펼쳐진다. △새로보미존(체험·교육)에서는 자원순환의 필수 코스인 분리배출 시연과 폐배터리, 멸균팩 등의 교환소를 운영하며, 재활용품을 활용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노리존에서는 시원한 무더위를 식혀줄 워터바운스, 캔크러시 등 자원순환을 놀이로 승화하는 노리스테이지를 운영한다. △무대존(공연·대회)에서는 업사이클링 작품 만들기 대회, 도전 그린벨! 퀴즈대회, 리사이클링 타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무대행사가 펼쳐져 관람객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제3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에서는 고장 나거나 쓸모 없어진 물건들, 재활용품 등 폐자원을 활용해 만든 예술작품인 '정크아트'전시가 진행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원순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배움의 축제, 자원순환의 가치를 놀이로 승화시킨 역동적인 축제, 환경 축제의 모델이 되는 축제, 쓰레기도 자원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내년 국가예산 주요사업 정부안 다수 반영

과소·미반영사업 대상 대응 연말까지 이어가

새정부가 편성한 2026년 예산안이 3일 국회로 제출된 가운데, 김제시(시장 정성주) 주요 사업도 신규사업 163억원, 계속사업 6,145억원 등 총 6,308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85억원)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15.7억원) △김제관아 외삼문 복원 정비(3억원)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4억원) 등이 반영돼 현안 해결과 지역 성장을 위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계속사업으로는 △지평선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35억원), 우분 연료화 시설 설치(47억원)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59억원) 등이 반영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며, 여기에 차후 새만금 미확정 사업 등이 더해질 경우 2026년 국가예산 확보액은 더욱 확대돼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우리 시가 그간 공들여온 주요 현안사업이 국가예산에 다수 반영돼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됐다"면서, "이번 정부안에 과소·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북도·지역 정치권과 함께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쓰레기·안전사고 없는 세계유산축전 약속"

'함께 만드는 세계유산축전 선포식' 친환경 축제 다짐

고창군이 세계유산축전 개막을 앞두고 '쓰레기 배출 자제' 등을 약속하는 선포식을 열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함께 만드는 세계유산 축전' 선포식을 열고 친환경 '2025 세계유산축전-고창 고인돌·갯벌' 개최를 다짐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추진상황 보고 △축전 통합해설사 위촉장 수여 및 선서 △'함께 만드는 축전' 큐브 퍼포먼스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고창군은 이번 축전을 준비하며 △쓰레기 없는 축전 △안전한 축전 △모두가 즐기는 축전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축전을 4대 실천사항으로 정하고,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위촉된 축전 통합해설사는 고인돌·갯벌 해설사를 통합 운영해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고창의 7가지 보물 및 세계유산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맡게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유산축전은 고창이 가진 소중한 세계유산을 군민과 함께 지키고,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역사적인 기회다"며 "군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축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A FARM SHOW' 우수 지자체상 수상

귀농귀촌 맞춤형 상담 펼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2025 A FARM SHOW'에 참가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정책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025 A FARM SHOW' 박람회에서 김제시가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동아일보 주최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aT센터 제1·2전시관을 활용해, 농업의 발전과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창업농업 분야를 소개하고,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맞춤형 컨설팅을 바탕으로 귀농·귀촌인 유치에 중점을 뒀다.

시는 '농촌에서 희망을, 농업으로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김태양 회장과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현장에서 1:1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을 통해 김제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과 실제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며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나섰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김제시의 귀농귀촌 정책을 많은 도시민에게 소개하고 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전북도민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

37개 종목·793명 출전

고창군이 지난 2일 저녁 실내체육관에서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참가 선수단결단식'을 진행했다.

행사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윤준병 국회의원, 오철환 고창군체육회장과 선수 및 임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전 보고를 시작으로 격려사, 선수대표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대회는 12~14일 고창군 일원에서 '세계유산도시 고창에서 뭉쳐라 전북의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3일간 펼쳐지며, 고창군체육회는 37개 종목에 선수 582명, 감독·코치 등 211명 총 793명이 출전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대회를 위해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 준비하고 있는 고창군체육회와 선수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참가선수단 모두가 5만 고창군민의 대표라는 자긍심을 갖고 경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개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부안군은 개학기를 맞아 2일 학교주변과 부안읍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부안군(교육청소년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안경찰서, 부안교육지원청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점검은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 문구점, 편의점 등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유해물건 판매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준수 여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등하굣길 불건전 광고물을 점검했다.

점검 활동은 오는 26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업주와 군민들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 힐링 프로그램 마련

고창군이 3일 청소년수련관 극장에서 고창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종만)주관으로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고창시니어클럽 강은아 씨 등 군수표창 6명, 2명 군의장 표창, 3명이 국회의원표창, 7명이 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을 받았다.

수상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다문화가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부에는 비영리컨설팅 월펌 표경흠 대표가 "사회복지, 이제는 Social Design의 시대로 간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사회복지의 미래 비전과 역할을 제시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힐링프로그램을 마련해 숲체험, 식물과 교감하는 원예 족욕체험 등이 이뤄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5~7일 청년 프리마켓 전통시장 100년 먹거리장터 개최

김제전통시장 일원에서 '제1회 김제전통시장 100년 먹거리장터'와'청년 프리마켓'이 개최된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김제전통시장 100년 먹거리장터 및 청년 프리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첫선을 보이는 김제전통시장 100년 먹거리장터는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하는 야간 먹거리 문화축제로 김제 국가유산 야행과 연계해 진행한다.

김제전통시장 100년 먹거리장터에서는 다양한 먹거리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공연과 이벤트가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먹거리장터는 김제전통시장 상인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대표 먹거리로 왕새우구이, 홍어삼합, 수육 등 막걸리와 어울리는 다양한 음식들과 함께 우리 쌀로 만든 쌀토스트, 쌀소금빵, 닭강정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간식거리가 준비돼있다.

막걸리 판매의 경우, 지역 막걸리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홍보 및 판매할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전통·풍류를 테마로 한 퓨전국악과 트로트 공연 등을 준비했고관람객과 함께하는 알찬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김제전통시장 100년 먹거리장터'를 통해 김제시민과 김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김제전통시장만의 맛과 멋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19일까지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 2차 추가 신청

부안군은 2025년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 7월 31일까지 접수 마감된 1차 신청에 이어 2차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신청은 꽃게 조업 등 어업 성수기를 맞아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어업인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은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해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어가당 13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군에 따르면 2024년도에 1013어가에 13억 2000만원의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 1차 신청기간 중에는 1251건이 접수돼 전년도 대비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군은 2차 추가 신청을 통해 누락 대상자에 대한 지급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신청자격과 요건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1월에 지급을 완료 한다는 방침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립도서관, '독서의 달'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 운영

부안군립도서관이 '독서의 달'을 맞아 군민들이 책과 더 가까워지고, 독서의 즐거움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지난 2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매주 화·수요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놀자! 재미있는 책놀이'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그림책을 읽고 그 내용을 놀이와 활동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또 '찾아가는 어르신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오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실버복지관에서 운영된다.

이와 함께 9월 한 달 동안은 대출 권수를 기존 5권에서 10권으로 늘리고 연체 도서를 반납하면 연체일과 관계없이 바로 대출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해 도서관 이용 편의를 높였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독서의 달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 모두가 책의 가치를 새롭게 느끼고, 도서관이 생활 속 문화 공간으로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공감뉴스 | 전북을 세계로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순창군 첫 주민자치회, 유등면서 출범

위원회·면민회 통합 행안부 승인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 논의·해결
국정과제 발맞춘 주민자치권 확대

3일 유등면 주민복지센터에서 열린 '제1기 유등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에 최영일 순창군수와 군의원,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순창군>

순창군 유등면이 군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키며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3일 유등면 주민복지센터 2층에서 열린 '제1기 유등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군의원,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위촉된 제1기 위원은 총 35명으로 구성됐으며, 초대 주민자치회장에는 화탄마을의 이윤택(57) 위원이 선출됐다.

유등면은 지난해 주민자치위원회와 면민회를 통합하기로 합의한 뒤, 같은 해 9월 군이 '순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후 위원 모집, 정관 제정, 운영 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올해 7월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이번 출범에 이르게 됐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는 주민참여형 기구다. 단순히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주체적인 조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유등면 주민자치회는 지역 현안 해결, 주민참여 사업,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윤택 위원은 "주민자치회는 우리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자리"라며"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유등면을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주민자치권 확대가 명시되어 있다"면서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의회, 통합 불권고·추진 전면 중단 결의

추진 절차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전북도·전주시에 절차 중단 촉구

완주군의회는 3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사진=완주군의회>

완주군의회는 3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절차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남용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완주군민의 뜻을 무시한 통합 논의 지속 △군정 안정성 및 행정력 낭비 △주민 간 갈등과 사회적 분열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합 불권고 결정을 촉구하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에 절차 중단과 군민 사과를 요구하며, 정부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완주군과 전주시 간 행정통합 논의는 이미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 추진됐으나, 모두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완주군민의 약 71%가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 측 단체 조사에서도 66%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서남용 의원은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군민의 뜻을 외면한 채 통합을 일방 추진하며, 지역사회의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안을 통해 통합 불권고와 추진절차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한민국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의회, 전주시, 전주시의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주민투표 제도 개정 건의안 채택

사전 공론화 절차 의무화 촉구
소수 서명 남용 방지·주민참여 결정

완주군의회는 3일 열린 임시회에서 최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법률상 주민투표권자의 1~2% 서명만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의가 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으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지자체 통합 건의 요건 상향 조정 △공청회·숙의토론회 등 사전 공론화 절차 의무화 △전자서명제 도입 및 행정기관 검증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수 의견에 의한 무분별한 통합 추진을 방지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결정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광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자체 통합은 지역 정체성과 주민 공동체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행법은 극소수 서명으로도 통합 건의를 가능하게 해 주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와 책임 있는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완주군과 전주시 간 통합 논의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히 건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주민 의사가 신중하고 성숙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의료원, 출연기관 최초 경영평가 5년 연속 '최우수'

평가 기준 상향에도 '가'등급 획득
ESG경영·비상진료체계 등 성과

남원의료원이 도 주관 '2025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서 최초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가'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기존 유형별 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최우수 등급의 기준이 90점에서 92점으로 상향 조정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 중 최초 5개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남원의료원에 따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6개 분야 11개 항목 대상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ESG경영 선포 및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기관장 주도의 실행의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협조 등도 정책사항 반영 노력, △재무건전성 개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등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오진규 원장은 "양질의 의료 및 포괄적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옥천인재숙, 교육부 '자기주도 학습센터' 선정

3년간 연 2억7천만원 지원
학습공간·교육프로그램 제공

순창군은 옥천인재숙이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최대 3년간 매년 2억 7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2일 밝혔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중·고등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교육부 신규 공모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지난 4월부터 군과 지역교육지원청이 참여기관 및 인재숙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컨설팅과 현장 실사를 거쳐 옥천인재숙을 공모 대상지로 확정한 데 따른 성과다.

특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옥천인재숙 지성관 내에 설치되는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올 연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학습공간 제공 △EBS 연계 학습관리 서비스 △대학생 온라인 화상 튜터링 등이며, 2027년부터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과 연계해 조성 중인 '순창군 어학 및 진로진학센터' 2층 공간을 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순창군은 교육 공간 제공과 시설 관리 역할을 맡고, 지역교육지원청은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 지원을 담당하며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기업재직자 맞춤형 평생교육 시범 운영

전북시민대학 완주특화캠퍼스
4개 대학·완주군 3개 기업 협력

완주군이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2025 전북시민대학 완주특화캠퍼스 시범 운영사업'을 통해 지역 내 기업체 재직자 대상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완주군과 전북권 4개 대학(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우석대학교, 전주대학교, 호원대학교)이 컨소시엄을 구축해 LS엠트론, 한솔케미칼, 실로암 요양병원 등 완주군 소재 3개 기업 재직자 총 32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품질분임조 및 통계적 품질관리 역량 강화, AI 활용 교육, 간부 리더십, 건강한 스포츠마사지, 힐링 두피테라피 등 5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비 2,000만 원(도비)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기업체의 직원역량 강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은지 교육정책과장은 "지역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특화캠퍼스 운영을 통해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더불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하반기 슬레이트 철거 지원 확대

10월까지 90동 철거 추가 접수
지난해·상반기 총 563동 철거

남원시는 지난달부터 하반기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슬레이트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지난해 사업비 12억 3천만 원을 투입, 총 372동을 철거했고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사업비 8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주택 148동, 비주택 43동으로 총 191동을 철거 완료했다.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까지 90동의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남원시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받고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동당 700만 원, 창고·축사, 노인·어린이 시설 등 비주택 철거는 200㎡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일반 가구는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처리 계획이다.

사업 희망 시민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청년 체감 정책 강화

15명 위촉 청년정책 심의·자문

완주군이 청년정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청년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완주군은 청년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행사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는 총 11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과 군의원, 청년 활동가, 청년정책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관련 사업 조정·협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유 군수는 "현재 봉동읍 동창 햇살 창조센터 2층에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조성 중"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삼례 '완충지대', 고산 '청촌방앗간', 이서 '이서나루' 등 청년거점공간을 통합 운영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청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섬진강에 뱀장어 방류 생태복원·어족자원 확충 '앞장'

순창군 섬진강 일대에서 지역 생태복원을 위한 뱀장어 방류행사가 열렸다.

지역 수산업체인 전이수산 이정 대표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5만여 마리의 어린 뱀장어(치어)가 섬진강에 방류됐으며, 민간인이 주도한 생태복원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방류된 뱀장어의 시가는 약 3천만 원 상당으로, 순창군의 어족자원 확충은 물론, 수생태계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를 주최한 이정 대표는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류 활동과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하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영일 순창군수는 "오늘 방류된 뱀장어가 무사히 성장해 섬진강을 더욱 건강한 생명의 터전으로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코로나19 확산세에 예방수칙 홍보·방역 강화

완주군이 최근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건진료소·경로당 등 고위험 대상자 방문장소에 감염병 예방 물품을 배부하고,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물품은 KF94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보건지소·진료소에 총 1만 3,400여개를 배부해 고위험 대상자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게첩 등 홍보강화에 힘쓰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는 손 씻기, 환기, 기침예절 준수,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방문시 마스크 착용, 밀폐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특히,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행사 참여 자제,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인근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유미숙 보건관리과장은 "지난해와 같은 큰 유행은 없으나, 아직까지 코로나19 입원환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미신고 반려동물 등록자진신고기간 캠페인

남원시는 미등록 동물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반려동물의 유실 방지와 보호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25.9.1~10.31)을 통해 2개월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일시 면제하고, 동물등록 의무화 및 비용 지원 사업을 홍보해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했다.

동물 등록은 동물을 등록함으써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빠르게 소유주에게 동물을 인계하여 유실, 유기 동물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는 10일 이내 및 소유자 변경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유실과 유기를 막고 우리시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진안군, 2025 전북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참가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4일에서 오는 6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지빌딩(방배로 73)에서 열리는 '2025 전북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이하 상담홍보전)에 참가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올해 상담홍보전은 전북특별자치도 주최, 전북특별자치도농촌사회경제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주관으로 13개 시군과 전북특별자치도귀농귀촌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내가 그린대로 고향의 품으로!(시즌2)"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다.

진안군은 이번 행사에서 귀농·귀산촌 정책, 스마트팜 지원 정책, 임시 거주시설 운영, 교육 프로그램 등 실제적인 정보를 1대1 심층 상담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상담홍보전을 통해 진안군의 정책과 정주 여건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전상담예약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상담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장은 웰컴센터, 전문가 상담관, 시군 상담관, 설명회 및 교육장으로 구성되며, △귀농·귀산촌 전문 상담 △귀농귀촌 설명회 △스마트팜 토크콘서트 △체류형 쉼터를 활용한 '4도 3촌 생활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읍, 노후 경로당 안전 점검 기능 보강 수요 조사 추진

임실읍이 관내 경로당 이용 회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경로당 안전 점검과 기능 보강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오는 19일까지 실시되며,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상의 위험을 개선 조치하고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건축된 지 오래된 경로당을 집중 점검하여 지붕, 벽체, 바닥 등 건물 보수와 전기, 가스, 수도 배관 등 다양한 분야를 조사할 예정이다.

읍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능 보강이 필요한 경로당은 내년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상 위험으로 시급하게 보수하여야 할 곳은 금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지역 기반 비자 승급 지원금 지원

임실군이 지난 2일 청웅면 소재의 대로농장을 방문하여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로 전환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 승급 지원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란 E9, E10, 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가 연봉 2천6백만원 이상 근로계약(2년), 한국어능력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면 E-7-4R 비자로 승급해 주는 사업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하면 비자 연장의 제한이 없고 배우자 입국과 취업이 가능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임실군에서는 비자를 승급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비자 전환 후 1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자 승급 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원금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이번 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최대규모 마한 취락지 발굴

계남면 화양리 일원서 주거지 63기 등 확인

곡옥거푸집 <사진=장수군>

장수군은 지난 2일 천천-장수IC 연결도로 공사 구간 사전 조사에서 금강 상류지방 최대 규모의 마한 취락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수군이 재단법인 전라문화유산연구원(조사단장 김미란)과 계약을 체결해 계남면 화양리 10-1번지 일원 '장수 침곡리 유물산포지 G'에서 시굴 9,814㎡와 발굴 5,780㎡ 규모로 매장유산을 조사한 결과다.

발굴 결과, 원삼국시대 마한 취락으로 추정되는 주거지 63기, 지상건물지 10기, 구상유구 8기, 수혈 3기가 드러났으며, 장수 지역에서 확인된 마한 취락 가운데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이 유적은 현재 지형 변형이 심하지만, 취락이 운영되던 당시에는 현장에서 확인된 범위보다 훨씬 넓은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지는 (말각)방형계 평면이 주류를 이루고 일부 타원형도 확인되었으며, 내부에서는 점토식 부뚜막·주공·벽구·장타원형 수혈 등이 드러났고 장란형 토기, 심발, 시루, 호, 완, 주구토기와 더불어 소량의 철기류, 방추차, 곡옥거푸집 등이 출토됐다.

특히 집선문·승석문이 새겨진 회색경질토기도 다수 발견돼 취락의 형성·운영 시기를 4~5세기로 추정하게 한다.

이 유적은 마한계 주거 구조의 특징을 분명히 보여주며, 전북 동부지역 마한계 주거지 연구와 장수 지역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유적이 자리한 마무산 남동사면은 유천과 장계천이 합류해 금강으로 이어지는 수계의 핵심 위치로, 고대 교통·생산 거점지로서의 위상도 드러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N치즈축제, 추석 연휴 5일간 특별 개최

2일 축제 준비 상황 보고회 개최

올해 일실 방문의 해를 맞아 임실군이 2025 임실N치즈축제를 기존 4일에서 5일간으로 특별 개최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일 심 민 군수 주재로 각 국실과장, 축제 제전위, 대행사, 유관기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2025 임실N치즈축제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분야별 추진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관광객 안전대책과 편의시설, 프로그램 구성 등 축제 전반에 대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임실N치즈축제는 임실 방문의 해에 열리는 만큼 더욱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구성해 색다른 볼거리와 체험거리 제공은 물론, 내방객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축제 기간도 기존 4일에서 5일로 하루 늘려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한층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되어 △임실N글로벌치즈 푸드페어 △숙성치즈를 활용한 맛있는 디저트 퐁뒤 체험 △국가대표 임실N치즈 대형 쌀피자 △저지종 원유 이용 프리미엄 숙성치즈 홍보 등 10개 분야 70여 개의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이에 더해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천만송이 국화꽃 경관이 올해도 축제장 일대를 수놓으며, 유럽형 장미원과 함께 어우러져 환상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볼거리, 청정 임실에서 자란 암소 한우와 읍·면 생활개선회에서 정성껏 만든 엄마표 향토 먹거리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진안고원길 '감성야(夜)행' 달빛걷기 행사

행사 당일 현장 신청

진안군은 오는 6일(토) '시나브로 치유길' 감성야(夜)행 '달빛걷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진안군이 주최하고 진안고원길이 주관한다.

'달빛걷기' 프로그램은 진안중앙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진안천을 따라 생태습지원까지 이어지는 4km 구간에서 진행된다. 마이산의 전경이 펼쳐진 고원의 야경 속을 걸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코스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 걷는 가족 친화형 행사로 마련됐다.

올해는 특별히 진안의 청정 고랭지 농산물로 만든 '치유도시락'이 선착순 600명에게 제공되며, 도시락을 맛본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해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걷기 후에는 재즈 공연과 지역 먹거리 나눔 이벤트 등 감성을 더하는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이어져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전망이다.

참가 신청은 행사 당일 현장에서 누구나 가능하며, 완주 후에는 출발지인 진안중앙초등학교까지 셔틀버스가 운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고원길 사무국에 문의하거나 진안고원길 카페를 참조하면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보조금 관리·운영 역량 높인다

보탬e 교육 실시 민간보조사업자 등 1백명 참석

무주군이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역량 강화에 나섰다. 3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실시된 교육에는 지방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2024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전면 개통된 '보탬e'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한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강사는 공무원 대상 1차시 교육에서 △보탬e 개요, △지방보조금 확정 통보 및 집행 등 행정 실무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을 강의해 호응을 얻었다.

2차시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에서는 △보탬e 금융정보관리,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강의하며 지방보조금 실무 이해를 도왔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보조금은 공공의 재원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정산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은 담당자와 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이해도를 높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정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조금 관리·운영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운영을 위해 지난달 25일에도 국고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전산실습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무주군,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회전 수상

성인문해교육 수강생 7명 영예

무주군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한 '2025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수상자는 글봄상에 '다시 또 엄마'을 출품했던 강ㅇ례, 글꽃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에 '글눈 뜨다'를 출품했던 최ㅇ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에는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를 출품한 정ㅇ희가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장학진흥원장상은 '아버지 다리'의 김ㅇ자, '손으로 전하는 마음'의 유ㅇ자, '사랑비가 내립니다.'의 김ㅇ선, '오일장에 가다'의 이ㅇ녀 등 4명이 받는다.

김성옥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무주군은 이번 시화전에 무주군민들레학교와 무주노인종합복지관 학습자들의 작품 12점을 출품해 7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안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글눈 뜨다'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등 배움으로 얻은 감동을 소박하면서도 진심 어린 표현으로 완성한 작품들이 따듯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라며 "문해교육이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의회, 의원간담회 … 가축분뇨 문제 논의

오동돈사 가축분뇨 유출 등

진안군의회는 3일 의장실에서 동창옥 의장 주재로 의원들과 관계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동돈사 가축분뇨 유출 문제와 매립장 운영 관리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수질오염 대책 △비상 상황 시 대응 체계 △주민 건강 우려 해소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했다.

특히 악취 저감 방안과 관리·감독 체계 강화, 비상 상황 대응 계획, 사업 추진 방향, 가축분뇨 관리 실태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보고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동창옥 의장은 "가축분뇨 문제는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행정은 주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삼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의회, 관촌 등 북부권 4개 면 순회간담회 개최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가 군민의 고충과 민원에 귀 기울이기 위해 신평·관촌·운암·신덕면 등 북부권 4개 면에서 순회간담회를 진행한다.

제9대 의회 공약 사항인 순회 간담회는 읍·면을 찾아가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과 건의사항은 처리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해결 여부와 진행 상황을 주민 개개인에게 직접 통보하고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행사이다.

임실군의회는 본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의정 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의견, 군민의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조례, 군 정책 등의 개선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순회간담회는 9월 8일 오후 2시 신평면사무소, 9월 10일 오전 10시 관촌면사무소, 오후 3시 30분 운암면사무소, 9월 11일 오전 10시 신덕면사무소 각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사전 접수 없이 누구나 해당 시간에 맞춰 현장을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장종민 의장은 "순회간담회를 통해 군민의 다양한 소리를 듣는 소통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며, "생생한 현장 민심을 파악하는 자리인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의견 개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농산물 무료 잔류농약 검사 지원

고성능 분석 장비 확대 구축

장수군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고성능 잔류농약 분석 장비를 확대 구축하고,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료 잔류농약 검사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는 동시에, 그 동안 검사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LC-MS/MS),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GC-MS/MS) 등 첨단 장비 5대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성분 463종에 대한 정밀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장수군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약 안전 사용 교육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현장 컨설팅 등 농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잔류농약 검사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은 분석 대상(농산물, 토양 등) 1kg을 채취해 기술보급과 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하면 되며, 분석 결과는 7일 이내에 SMS와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창립 40주년, 전북도 수석인 연합회 회원전’ 성료

200여 점 수석 작품 향연

‘창립 40주년, 제37회 전북특별자치도 수석인 연합회 회원전’이 지난달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완주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사)대한민국 수석인 연합회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공동주관하고, (사)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수석인 연합회가 후원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 명의 수석 애호가들이 참여한 이번 회원전에서는 회원들이 소장한 2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많은 관람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전시와 함께 진행된 수석발전기금 공로패 및 장학금 전달식은 행사에 의미를 더했으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을 격려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다졌다.

조은기 전북특별자치도 수석인 연합회장은 “이번 회원전은 40년의 역사를 가진 수석인 연합회의 전통과 지역 문화예술의 조화로운 발전을 상징하는 행사로 앞으로도 우리 연합회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의미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창립 40주년, 제37회 전북특별자치도 수석인 연합회 회원전이 지난달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완주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완주군>

성은의료재단 참조은병원, 정읍시에 장학금 200만원 기탁

정읍시 수성동에 위치한 성은의료재단 참조은병원(이사장 배장환)은 3일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기탁식은 정읍시청에서 열렸다.

참조은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왔으며, 이번까지 총 5회에 걸쳐 누적 1100만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전달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서울시티발레단 김광진 이사장, 김제시에 2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서울시티발레단 김광진 이사장이 3일 지정기부사업인 ‘김제形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티발레단은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전문예술법인 단체로 2009년에 창단되어 발레 대중화에 힘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이사장은 “내 고향 김제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목표액을 달성해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응원메시지를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무주군에 500만원 기탁

상수도 사업으로 무주와 인연 무주발전 기원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 김상기 대표가 지난 2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백만 원을 기탁해 훈훈함을 안겼다.

김상기 대표는 “무주군과의 소중한 인연이 고향사랑기부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기부금이 자연특별시 무주군 발전의 토대가 되고 군민 행복의 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이 2024년부터 무주군 상수도 현대화 사업 및 유지 관리 용역을 수행하며 맺은 인연이 기반이 된 것으로,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은 그동안 무주군 급수구역 전체의 상수도 관망 유지 관리와 누수탐사를 통해 유수율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다.

/무주=최의호 기자

서성환 신원케미칼 대표, 부안군에 100만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달 28일 전주시 소재 화학제품 유통기업 신원케미칼의 서성환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남원 출신인 서성환 대표는 평소 고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이어오며 주소지를 제외한 전북 13개 시군 모두에 고향사랑기부를 실천 중이다. 서 대표는 “기부를 통해 전북의 각 지역을 다시 돌아보게 되며 그 지역이 가진 가치에 공감하게 된다”며 “남은 지역에도 순차적으로 기부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남원 봉제업체 가인공방, 취약계층에 파자마 50벌 기부

남원시 죽항동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점숙)는 지난 2일, 관내 봉제업체 가인공방(대표 김혜경)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파자마 50벌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의류 구매가 부담스러운 저소득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기부된 파자마는 ‘1일 1가구 소통 행정’을 통해 취약계층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성하종합건설 등 고창군에 장학금 기탁 이어져

(재)고창군장학재단에 지역인재 육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계속되고 있다. 3일 성하종합건설에서 500만원, 부송건설에서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고창군 학생들의 도전과 성장을 격려했다.

성하종합건설 박영철 회장은 “지역 청년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며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부송건설 고양규 대표는“저 역시 고창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도움 속에서 성장했다.”라며 “지역 후배들이 꿈을 이어가고,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고창군에서 열린 고창 포럼에서 오종남 서울대 명예교수가 3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주시청 ‘피전스’, 전국공무원야구대회 3위

전주시 공무원 야구팀인 전주시청 ‘피전스’(단장 강세권)가 전국공무원야구대회에서 3위에 올랐다. 피전스는 지난달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22회 제주시장기 전국공무원야구대회에 출전, 3위에 입상했다. 이 대회는 전국에서 34개 기관 공무원 팀들이 대거 출전했다.

지난 2005년 창단한 전주시청 ‘피전스’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야구로 건강을 챙기며 일도 열심히 하는 모범 동아리 클럽이다.

피전스는 예선에서 제주도교육청과 환경부 팀을 누르고 결선에 올라, 16강에서 제주시청을, 8강에서 전남도청을 각각 꺾고 3위를 차지했다.

강세권 단장은 “우리 전주시 야구단은 운동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하는 건전한 클럽”이라며 “이번 대회에서 전국 공무원들에게 전주 올림픽 유치를 알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진안군 진안읍 새마을회, ‘힐링 삼계탕 나눔행사’ 개최

진안군 진안읍새마을회(협의회장 유한열, 부녀회장 고은숙)는 3일 영양 가득한 삼계탕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치신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됐다.

이날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100여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물으며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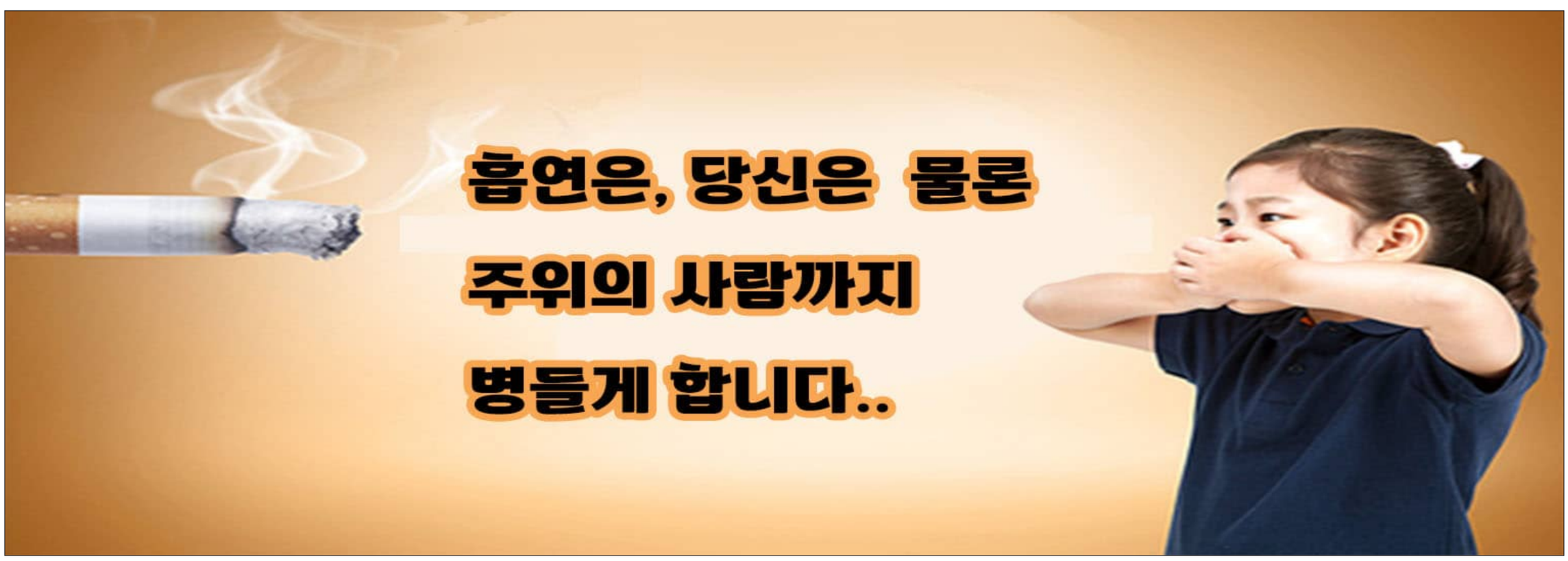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 계남면, 소외계층과 함께 ‘행복 나들이’ 실시

장수군 계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10여 명을 초청해 VR 체험 프로그램과 식사 지원을 결합한 ‘행복 나들이’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나들이는 협의체 위원 10여 명들이 대상자와 1:1로 짝을 이루어 장수읍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VR 프로그램을 함께 체험하고, 이후 식사를 하며 정서적 교류를 나누고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장수=최진수 기자



〈一事一言〉

출연기관장 자리가 지방선거용 징검다리인가?

김관춘
논설위원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지역의 정치판은 벌써 선거 국면에 접어든 듯한 분위기다. 여야 정당은 물론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후보군들이 거론되면서 움직임은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북자치도 산하 출연기관장들의 잇따른 사퇴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수장이 임기를 다하지 않고 선거 출마를 명분으로 중도에 퇴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만 보더라도 우려가 크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임기를 10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사퇴하며 사실상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3년 임기 중 불과 1년만 근무하고 시장 선거에 나서겠다며 퇴진했다. 심보균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역시 시장 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임했다. 또 사례는 다르지만, 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 역시 정년을 5년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명예퇴직하며 출마 준비설에 휩싸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처신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과 혼란이다. 기관장이 사퇴하면 후임자를 임명하기까지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 그 사이 주요 정책이나 사업은 지연되고, 업무 방향은 흔들리며,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된다. 기관 운영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장기 비전이 흔들린다. 특히 출연기관은 정책 연구, 산업 지원, 공공 서비스 제공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수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기관장이 또 공석이다", "방향성이 오락가락한다"는 불만이 쏟아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공공기관장 자리가 지방선거를 겨냥한 '스펙 쌓기용' 발판으로 악용되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임명권자인 전북자치도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치적 고려 속에서 인사를 단행하다 보니, 기관장 자리가 전문성과 책임보다는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 결국 "정치판에 뛰어들 준비가 되면 언제든 사퇴해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이 굳어진 셈이다.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피선거권은 존중돼야 한다. 법이 정한 하자가 없는 한, 누구든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수장의 경우 그 권리 행사에는 분명한 제약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도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공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자리인 만큼, 최소한 임기를 충실히 마무리하고 나서 정치적 도전을 모색하는 것이 도리다. 임기를 무책임하게 내려놓는 순간, 해당 기관과 도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 된다.

따라서 출연기관장 임명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첫째, 임명 당시 임기 보장에 대한 확약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일정 기간 내 중도 사퇴 시 불이익을 주는 장치를 마련하면 최소한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다. 둘째, 임용 과정에서 도덕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기관장 후보자는 청문회나 임용 심사 과정에서 임기 내 사퇴 의사가 있는지, 정치적 도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출마 가능성이 높다면 아예 임명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공공기관 경력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쿨링오프' 제도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예컨대 기관장직을 사퇴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는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공공성을 해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넷째, 사퇴 과정에서 도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출연기관장이 임기 중 사퇴할 경우, 사퇴 이유와 향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기관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수인계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사 원칙의 확립이다. 출연기관장은 특정 정치인의 측근이나 '자리 나눠주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히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임명해야 한다. 정치적 배경이나 선거 출마 여부가 아닌, 기관 운영 능력과 지역 발전 기여도가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기관장 스스로도 자리의 무게를 느끼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다.

출연기관은 단순한 행정 편의 기관이 아니다. 연구와 정책 개발을 통해 지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고, 산업과 고용을 지원하며,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런 기관이 정치 도전의 징검다리로 전락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이 짊어지게 된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전북자치도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장 인사에 있어 더 이상 정치적 안배 논리를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 책임감 없는 중도 사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도민 앞에 떳떳한 인사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특정인의 정치적 야망을 키우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봉사의 최전선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다.

사 설

새만금 SOC, 일괄 예타면제로 개발 속도 높여야

새만금 개발이 착공 35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 지연에 있다. 도로·항만·철도·배수갑문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제때 갖춰지지 못해 기업 투자와 산업 입주가 늦어지고, 이는 다시 전체 개발 속도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아 왔다. 문제의 핵심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다.

지난 16년간 새만금 관련 SOC 사업 12건 가운데 단 1건만 예타 면제를 받았다. 나머지 11건은 모두 개별 예타를 통과해야 했는데, 평균 18개월이 소요됐다. 최장 40개월까지 끌었던 사례도 있었다.

그 사이 기업 투자 결정은 줄줄이 연기되거나 축소됐고, 완공 시점이 제각각인 SOC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결국 SOC의 지연이 새만금 개발 전반을 발목 잡아온 셈이다. 새만금 내 다양한 사업들이 서로 원활하게 연결이 되지 않아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이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만금 개발은 개별 사업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상호 긴밀히 연결된 '통합형 개발사업'이다.

도로가 있어도 항만이 늦어지면 물류 효율성이 사라지고, 항만이 있어도 철도가 뒤따르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 배수갑문과 매립, 환경생태용지는 또 다른 SOC와 맞물려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렇기에 SOC 일부만 늦어도 전체 사업이 무용할 수 있다. 이런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면 SOC 사업을 개별 예타에 맡기는 것은 제도와 현실의 괴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은 국가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새만금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균형발전 프로젝트다. 지난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를 통해 신속히 추진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향후 예타를 앞둔 새만금 SOC는 남북 3축 도로(1조1천227억), 내부간선도로 잔여구간(5천468억), 환경생태용지 2-2단계(2천444억), 배수갑문 증설(2천600억) 등 2조 원대 규모다. 이들 사업은 산업 입주와 물류망 완결성, 친환경 개발, 해수유통과 에너지 자립 등 새만금의 미래를 좌우하는 필수 인프라다. 무엇 하나 우선순위를 따질 수 없는 만큼, 일괄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후보 시절 "새만금 문제는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선되면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길은 분명하다. 현 정부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SOC 일괄 예타면제 외에 다른 길은 없다.

SOC는 '先 SOC, 後 투자' 구조를 갖는다. 기반 시설이 갖춰져야 기업 투자와 고용이 뒤따르고 공사비 절감 효과와 민간투자 촉발, 지역경제 활성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개발이 빨라진다. 지지부진한 예타절차로 발목을 잡는다면 새만금은 또다시 기회를 놓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대의 앞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일괄 예타면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

문화재열전

정묘거의록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금속활자본
-지정일 - 2022년 3월 11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전주시

▲오늘의 시

가을엔 맑은 인연이 그립다 / 이외수

가을엔 맑은 인연이 그립다
서늘한 기운에 옷깃을 여미며
고즈넉한 찻집에 앉아
화려하지 않은 코스모스처럼
풋풋한 가을 향기가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그립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 한 잔을 마주하며
말없이 눈빛만 바라보아도
행복의 미소가 절로 샘솟는 사람
가을날 맑은 하늘빛처럼
그윽한 향기가 전해지는 사람이 그립다
찻잔속에 향기가 녹아들어
그윽한 향기를 오래도록 느끼고 싶은 사람
가을엔 그런 사람이 그리워진다
산등성이의 은빛 억새처럼
초라하지 않으면서
기품이 있는 겉보다는 속이 아름다운 사람
가을엔 억새처럼 출렁이는
은빛 향기를 가슴에 품어 보련다

시인 약력 : 1946년 경남 함양 출생. 1964년 춘천교육대학교에 재학 중 군 제대 후 중퇴했다. 1975년 중편 '훈장'이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정식 등단했다. 소설 '훈장'과 시집으로 '풀꽃 술잔 나비' '그리움도 화석이 된다', 에세이 '내 잠 속에 비 내리는데' '날다 타조' '하악하악' 등이 있다.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와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 정읍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정읍

정읍시립박물관서 국보순회전 '왕실 청화백자' 개최 '정읍 고사부리성' 복원 사업 박차

내장산의 단풍과 구절초의 은은한 향기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가을의 대표 도시, 정읍시가 2025년 하반기를 맞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넘어 시민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드는 '문화 르네상스'의 서막을 연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국보급 유물이 시민 곁으로 찾아오고, 피카소와 앤디 워홀 등 세계적인 거장의 작품이 지역 미술관에 걸린다.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는 배움의 결실과 흥이 어우러져 더욱 풍성해졌으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담대한 걸음도 시작된다.

정읍시가 추진하는 다채로운 문화·역사·교육 정책들은 시민에게는 일상의 풍요로움을, 도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손에 닿는 역사와 예술, 시민의 일상을 채우다

정읍에서는 9월부터 시공간을 초월한 특별한 예술적 경험이 시민들을 기다린다. 정읍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관이 기획 전시를 연이어 개최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이는 문화 향유의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실 속에서, 지역 시민들이 거주지 가까이에서 최고 수준의 문화 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읍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먼저, 정읍시립박물관은 9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의 공모사업인 국보순회전 '푸른 빛에 담긴 품위와 권위, 왕실 청화백자'를 개최한다.

전국 단 8개 지자체에만 주어진 기회를 통해, 조선 왕실의 품격을 상징하는 청화백자 5점이 정읍을 찾는다. 특히 보물로 지정된 '백자 투각 모란무늬 항아리'를 포함한 2점은 초·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수록된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이번 전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책 속의 유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우리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감하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시는 무료로 진행되며, 9월 30일부터는 고려시대의 푸른 미학을 대표하는 고려청자 20여 점을 추가로 선보이는 기획특별전도 함께 열려 그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정읍시립미술관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획전시 'RE:MUSE – 삶 속의 초상'을 9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의 여인을 모티프로 '여성'이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탐구한다.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권진규, 박수근 등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국내외 거장들의 회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80여 점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는 지역 미술관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대규모 기획전으로, '정읍사'라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산을 현대적이고 세계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전시 기간에는 전문 도슨트가 상주해 작품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관람객들의 깊이 있는 감상을 도울 예정이다.

1. 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 명시
2. 정읍사문화제
3. 고사부리성 복원
4. 청화 구름 용무늬 항아리

관람료는 5000원(전북도민증 소지자 3000원, 정읍시민 2000원)이며, 전시기간 중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를 잇고, 배움과 나눔으로 미래를 열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이틀간 정읍사문화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정읍사문화제는 현존 최고의 백제가요 '정읍사'에 깃든 여인의 숭고한 사랑을 기리는 지역의 대표 축제다. 올해는 특히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가족 단위 즐길 거리를 대폭 확대했다. 25일 기념식에는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이, 26일에는 전국 규모의 '정읍사가요제'가 열려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여기에 '평생학습축제'가 더해져 축제의 의미를 한층 풍성하게 만든다. 시는 여성문화관, 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해 자격증, 어학, 직업능력, 인문교양 등 시민들의 수요에 맞춘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또한 도심 교육시설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강사를 파견하는 '모두배움터' 사업, 배움의 시기를 놓친 어르신들께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성인문해교육', 자발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하는 '평생학습 동아리' 사업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단단히 다져왔다.

이번 평생학습축제는 1년간 시민들이 갈고닦은 배움의 결실을 전시, 공연,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는 자리다. 이처럼 두 축제의 만남은 정읍의 유구한 역사와 현재 시민들의 뜨거운 배움의 열정이 한데 어우러져 과거를 기리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향한 희망을 공유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 천년의 기틀을 다지다

정읍시는 화려한 문화예술의 향연 속에서도 도시의 근간이 되는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존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다.

특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그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오는 10월 31일, 시는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명칭 및 정신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는 3·1운동과 함께 대한민국 건립의 핵심 정신인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해 그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평가받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자체가 주도해 헌법 개정이라는 국가적 의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시의 강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보여준다. 토론회 이후에는 참석자 모두 국회 본관 앞에 모여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기리는 것을 넘어, 그 정신을 계승해 현재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호남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국가 사적 '정읍 고사부리성' 복원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진입로(480m)와 주차장(36면) 조성을 완료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는 고부향교, 고부관아터 등 주변 문화유산과 연계해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역사문화교육의 현장이자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초석이다.

2030년 성벽 복원 완료를 목표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시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가꾸어 미래 세대를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